

2023

Green

News

2023년, 무엇 하나 역진 아닌 것이 없었지만 녹색연합은 굳건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연대와 연결은 여전히 단단했고, 활동의 기록은 선명했습니다.

물론 위기는 여전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4대강 사업으로 우리 강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부터 공항까지 우리 국토는 무수히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의 회복탄력성은 그 어느 곳,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하고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멈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중단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우리를 둘러싼 자연 생태계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당장의 결의와 요구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소리 높여야 합니다. 더 큰 연결과 물결로 맞서야 합니다.

탄압하겠지요. 위협할 것입니다. 기득권을 쥐고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며 사익을 편취해온 이들은 두고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연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래서

재판장이라도 우리를 불러내겠지요.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2023년 전국 녹색연합 활동이 수록된 활동보고서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고 지금 이곳이 보루입니다. 우리가 바뀌내지 않으면 우리가 돌려세우지 않으면 파국의 들머리에서 역전의 기회는 없을 것이라는 녹색연합의 기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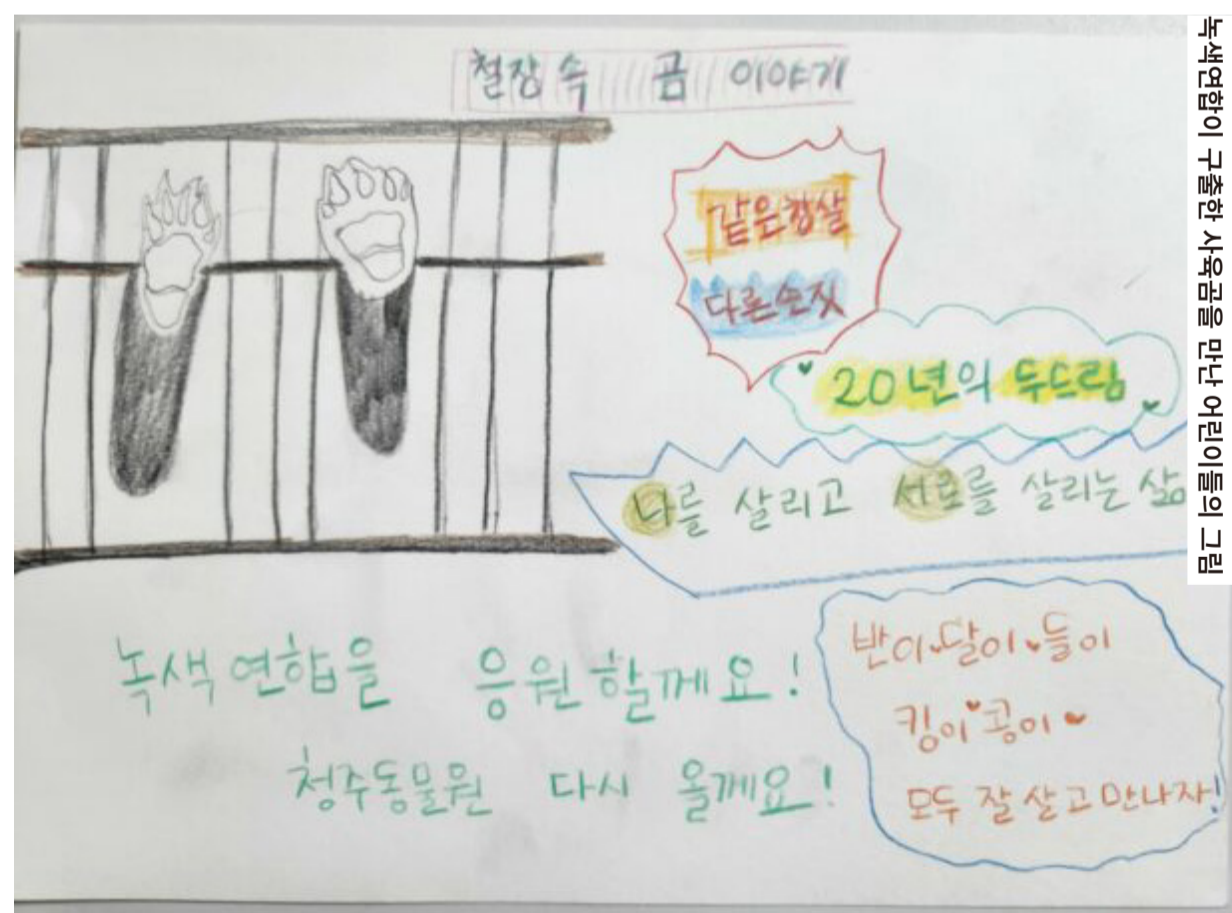
2026년부터 잔인하고 부끄러운  
응담 채취용 곰 사육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2023년 12월 20일,  
사육곰 산업의 종식을 법제화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야생생물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녹색연합은  
한 해 동안 의원실을 방문해 법안의  
필요성을 알리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육곰 문제 해결에 이 법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을  
만났습니다. 사육곰을 생각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육곰을 위해 활동하는  
동물보호단체와도 연대했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가장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는  
녹색연합은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육곰 결을 지켰습니다. 전국의 농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좁은 철창 속 생명의 고통을  
알려왔습니다. 불법을 밝혀내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육곰

구출이라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구해보자! 2018년, 녹색연합은  
시민과 함께 최초로 사육곰 구출을  
해냈습니다. 구출된 4마리의 사육곰은  
응담 채취용이 아닌 반이, 달이, 곰이,  
들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을 맺고, 사육곰을  
위한 보호시설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생명을 방치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았던  
정부를 결국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끌어낸 것은 녹색연합의 꾸준하고  
끈질긴 활동과 그 활동을 지지해 준  
시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육곰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40여 년 만에 문제 해결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야생생물법  
국회 통과는 2022년 환경부, 사육곰  
농가, 지자체, 시민단체가 모여 약속한  
'곰 사육 산업 종식'의 실현을 위한  
큰 첫걸음입니다. 법안을 발의하고  
필요성을  
공감한

활동가 한마디  
아는 만큼 보이기  
활동하면서 그동안 알던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같은 시선을 가지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통과를 위해 함께  
힘써온 시민사회단체, 사육곰의  
편이 되어준 시민분들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20년간 사육곰 보호와  
산업 종식을 향해 끈질긴 걸음을  
이어온 녹색연합에게는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잔인했던 사육곰  
역사 속에서 야생동물이 아닌 응담  
채취용으로 사육되고 죽어간 생명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느낍니다.  
그렇기에 아직 남은 사육곰의 더  
나은 삶을 더 많은 사람과 함께  
꿈꾸기를 기대합니다. 녹색연합은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사육곰 결을  
지키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응담  
채취를 위한 곰 사육은 법적으로  
금지되지만, 이를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구레와 서천에  
들어설 사육곰 보호시설이 제대로  
'보호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2024년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사육곰  
산업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두 번째  
삶을 살아 갈 사육곰들의 미래를 위해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야생을 야생답게, 곰 사육 종식!



‘역대급’ 산불로 기록된 2022년 대형산불에  
이어 2023년에도 강릉 산불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산불의 상흔이  
채 가시기 전, 장마철에는 ‘기록적’ 폭우와 함께  
심각한 수준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난도 있습니다. 겨울철 이상고온과  
줄어드는 적설량은 아고산대 침엽수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녹색연합은 2023년 한 해 전국  
곳곳의 기후 재난 현장을 찾았습니다. 목소리를  
가지 못한 자연의 존재가 처한 상황과 주목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언론, 국회, 온라인  
채널을 통해 알렸습니다.

2022년 발생한 울진-삼척 지역 대형산불은  
우리나라도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16시간 동안 20,928ha의 숲을 태우며 역대  
최장, 최악의 산불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2023년 4월 11일 발생한 강릉 산불은 재산 피해  
규모만 274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기록적인  
재난 상황에서 야생동물의 희생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대형 산불에 따른 야생동물의 서식지  
피해 조사와 서식지 회복을 고려한 생태복원이

절실합니다. 멸종위기종이 대형 산불과 그에 따른  
서식지 변화로 위협을 받는 상황은 앞으로 더욱  
많은 곳에서 목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형 산불 이후 야생동물, 특히 산양의 서식지  
조사를 진행한 내용을 담아 지난해 5월 <울진삼척  
산양 서식지 산불 피해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여  
이후 활동의 초석으로 삼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국회 토론회를 통해 대형 산불에 따른 야생동물의  
피해를 줄이고 서식지를 생태 복원하는 등  
환경부와 산림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형 산불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산불 현장을 모니터링하며  
마을 비상 소화장치 설치와 같은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언론을 통해 기후 재난에 적극  
대비해야 함을 알렸습니다. 2023년 7월에는  
남부 지방에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산사태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지요.  
현장 모니터링 결과 부실한 관리로 방치된 지역에  
산사태 피해가 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녹색연합은 올해에도 기후재난의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전하는 한편,

정부의 대비책을 점검하는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기후 스트레스로 인한 침엽수의 집단  
고사는 진행 중입니다. 지리산 정상 천왕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는 구상나무의 거대한 무덤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상고온으로 인한 매개충의  
밀도 증가라는 자연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재선충병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된 상황입니다. 구상나무를 비롯한 침엽수의  
고사가 가속화되는 한편 고사목의 증가로 인한  
산사태 우려도 커집니다. 고요한 재난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안부는 곧 인간의 안부이기도 합니다.  
2024년에도 녹색연합은 목소리를 가지 못한  
자연을 대변하기 위해, 기후 재난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모든 생명의 안부를 묻기 위해 현장을  
찾겠습니다. 2024년에는 해안 침식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해안선 모니터링과 백두대간보호지역  
훼손 실태 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기록이 제대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싸우고  
제안하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 기후 재난의 시대, 자연의 안부를 묻는 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려오는 난개발 소식. 이런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는 개발 사업을 하기 전 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조사하고,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면 사업 부지를 변경하거나 환경영향 저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영향평가'인데요, 녹색연합 활동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제도입니다. 2023년 녹색연합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실제 개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제도가 그 목적대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작동하려면 어떻게 고쳐져야 하는지 연구했습니다.

녹색연합이 들여다본 환경영향평가 현장의 모습은 심각했습니다. 도로를 넓히기 위해 무참히 베어진 제주 비자림로 삼나무 숲에는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정보호종이 단 한 종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환경영향평가서에 법정보호종이 누락되는 일은 정말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사업자와, 이를 검토하는 검토기관, 그리고 협의하는 환경부는 각각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서를 검토해야 하는데, 검토기관의 직원이 사업자가 꾸린 환경영향평가서 자문단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일어난 일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짓기 위해서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자 멸종 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곳의 산을 밀고, 그 흙을 40m 깊이의 바다에 넣어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태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곳에 대규모의 공사를 하는데, 공사로 인한 환경 영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들이 환경영향평가서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자문단이 되어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녹색연합이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2023년 2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조건부 동의하며 사실상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 노선은 멸종 위기 야생생물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주 서식지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카가 생기면 서식지가 단절되어 개체 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산양 외에도 총 762종의 생물이 서식하는데, 이 중에 멸종 위기 야생생물은 13종, 식물은 1종이 사는 곳입니다(환경영향평가서 기준). 또 앞서 기술한 것처럼 5개의 보호구역으로 겹겹이 보호되는 지역이자 국립공원 핵심지역입니다. 2019년 환경부는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부동의했지만 2023년에는 재보완서에 조건부 동의했습니다. 4년 만에 설악산이 마음껏 개발해도 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낮아졌을까요? 환경부가 정치적인 판단으로 사업을 허가한 것입니다.

녹색연합은 이 밖에도 대저대교 건설 예정지,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강원도 자방산 석회 광산, 가리왕산 활강경계장, 경상북도 오미산 풍력단지, 500kV 송전선로 백두대간 구역, 충청북도 청주 쓰레기 소각장, 전라북도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를 찾았습니다. 현장을 찾고 지역 주민과 활동가를 만나며 환경영향평가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면 좋을지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들과 함께 연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2024년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고자 합니다. 법안을 발의하고, 발의한 법이 본 회의를 통과하도록 하는 활동은 쉽지 않겠지만, 녹색연합 회원분들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다면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활동가 한마디  
환경활동가로 살아가며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울고 웃었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저희에게 환경영향평가는 중요한 제도인데, 개발 사업자에게는 돈 버는데 방해되고 성가신 규제인 것 같아요. 모두에게 돈보다 생명이 소중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예정지

## 야생을 지키는 환경영향평가로 바꾸자!

법의 권리

민권센터 프로젝트 팀

이디스 활동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거대한 군기지를 아시나요? 바로 용산 미군기지입니다. 이 부지에는 130년 넘는 기간 동안 청군, 일본군에 이어 미군이 주둔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랫동안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기에 '주권 밖의 장소'로 여겨졌어요. 전체면적만 265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370개 면적과 맞먹는 곳이 시민들에게 금지된 공간으로 남아 있던 것이죠.

2023년 5월 4일, 이 장소의 일부가 시민들에게 '용산 어린이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국방부가 있는 용산으로 옮겼고, 미군이 일부 반환한 용산 기지에 공원을 조성하기 시작한 결과인데요. 하지만 공원이라기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들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린이정원으로 개방된 부지들은 2021년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과 미군이 합동으로 진행한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에서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납, 수은 등 치명적인

활동가 한마디  
2023년, 활동가가 되면서 저의 첫 현장을 만났습니다. 바로 '오염자부담원칙에 근거한 용산기지 오염정화'라는 활동입니다. 누군가를 경유해 온 정보를 수동적으로 접했을 때와 달리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그 무게가 제자리걸음이 아닌, 굳건한 한 걸음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용산 어린이정원 개장식

## 오염정화가 상식으로 자리 잡은 사회를 위하여

법의 권리

민권센터 프로젝트 팀

박성욱 활동가

'자연의 첫 변호인'을 표방하는 녹색법률센터는 이병일 소장과 최재홍 부소장을 중심으로 20여 명의 운영위원 변호사들과 함께합니다. 2023년에도 환경운동의 여러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동물권 활동의 일환으로 '학교 내 동물실험·실습 반대를 위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물실험·실습 경험을 가진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국내 실험동물의 처우, 그리고 학교 동물실험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길 기대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2023년에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인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변호사들은 매 기일마다 관심을 가지고 모인 시민들에게 당일의 진행 내용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궁금한 점에 대하여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17호인 산양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색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에 맞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킴이국민행동과 함께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허가 취소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 법률가들과 환경운동 및 환경법에 관심 있는 인턴 활동가들을 선발하여 실무수습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운동을 톺아보는 것부터 시작해 다양한 환경현안에 대한 법률대응 방안과 사례를 배우고, 다양한 공익활동 현장에서 활동하는 운영위원 변호사들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곧 환경을 지키는 현장에서 다시 만날 날이 오겠지요?

이 밖에도 골프장 예정지의 불법 벌목, 경비행장 소음피해, 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른 민원

활동가 한마디  
수라 갯벌에서, 설악산에서,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자연의 권리를 위해 함께 연대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등 녹색법률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시민분들의 다양한 환경 민원에 응답하기 위해 운영위원 변호사들이 차례로 환경 민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녹색연합의 여러 활동 현장, 법률 대응 활동에서 활동가들이 마주치는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법률 자문을 통해 연대했습니다. 2024년에는 예비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녹색법률학교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환경 운동의 여러 현장에서 다루는 법리를 배우며, 우리나라 환경법의 한계를 알고 자연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법의 권리

녹색법률센터

박금란 활동가

## 야생의 권리를 보장할 때까지



일본대사관에 오염수가 가득 담긴 용수기를 배설합니다.



오염수 투기는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입니다. 바로 부들부들거리는 국민들의 울분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2023년 8월 24일, 바다가 공공연히 핵 쓰레기장이 된 날을 기억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 '육상 저장'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을 비호하는 세력들은 '해양 투기 계획은 안전하다, 투기 결과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검증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목소리 냈습니다. 대통령에게 투기 반대를 요구하는 3천여 명의 목소리를 신문에 실었습니다. 일본대사관에 반대 의사를, 한국 정부에 188만 명의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일본 시민사회, 각국의 시민과 공동 행동을 진행했으며 매주 문화제와 집회를 통해 오염수의 육상저장과 대통령의 반대 의사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오염수의 영향, 투기 공범을 자처하는 정부의 태도, IAEA 검증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녹색연합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함께 분노하고

연대한 시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북한 지령을 받았거나 괴담 유포 세력이라며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총선에 미칠 영향 때문에 조기 투기를 요청했다는 일본 보도에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부 부처는 수억 원씩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내용을 홍보하는데 써버렸습니다. 원전 최강국을 추진하는 정부에게 안정성은 뒷전이었습니다. 우리의 생존권,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저버리고 생명을 포기하는 정부를 확인했습니다.

한국도 삼중수소를 버리지 않냐는 질문은 종종 본질을 흐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후쿠시마 핵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로 인해 발생하기에, 삼중수소 외에도 더 많은 방사능을 포함합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가 핵사고를 수습하지 못하면서 후쿠시마에서는 지금도 오염수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핵발전을 가동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감상선암, 체내 삼중수소 검출 등 주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라며

불필요한 피폭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오염수와 방사능이 미칠 영향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안전을 단정짓는 게 비과학 아닐까요? 후쿠시마 오염수는 결국 바다에서 퇴적되고 농축되어 고래와 새에게, 인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핵사고로 발생한 오염수 투기를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오염수 투기는 물론 핵발전까지도 멈춰야 할 것입니다.

2024년, 4차 투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버려지지 않아도 될 수천 톤의 오염수가 또다시 바다로 쏟아질 겁니다. 투기 전부터 우리는 오염된 후쿠시마 인근에서 이미 기준치 180배 이상의 세슘이 검출된 우려와 기준치 이상의 농어를 보았습니다. 이미 오염된 바다를 더 오염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2024년에는 오염수 투기 저지 활동을 지속하면서, 오염수 투기를 용인한 근본 문제이자 기후위기 대응을 늦추는 한국 정부의 핵진흥 정책에 제동하는 활동을 이어갑니다. 보다 온전한 바다를 위해,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 온전하고 안전한 바다를 위해

바다의 권리

본부 기후에너지팀

편의의 활동가

활동가 한마디  
결국 오염수 투기를 못 막지 않았냐는 말이 종종 생각납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의 투쟁과 진심을, 연대의 힘을 확인하는 한 해였습니다. 변화의 그날까지 2024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2023년 10월 14일 세계 철새의 날을 맞아 인천 송도갯벌에 130여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다들 가슴 장화를 신고 갯벌로 걸어들어갔습니다. 그 갯벌엔 약 1km에 걸쳐 불법 칠게잡이 어구 수백 개가 박혀 있었습니다. 불법 칠게잡이 어구는 PVC 파이프를 가로로 쪼갠 후 갯벌에 매립한 것으로 파이프에 빠진 칠게를 씹살이하는 불법 조업이 이루어집니다. 칠게가 사라지면 갯벌 정화 기능이 약화되고, 칠게를 먹이로 하는 멸종위기 조류 알락꼬리마도요의 생존까지도 위협하지요. 알락꼬리마도요는 전 세계 약 3만 2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폭 빠지는 갯벌에 다들 몸을 가누기 어려우면서도 칠게를, 알락꼬리마도요를, 갯벌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세 시간가량 5m짜리 불법 칠게잡이 어구 300여 개를 수거했습니다. 해양환경 관련 단체와 재단, 기업과 국제기구, 자원봉사와 교육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갯벌을 살리기 위해 모여 비를 맞고 온몸에 갯벌을 문허가며 적지 않은 시간 고생했지만, 불법 칠게잡이 어구 수백 개를 수거한 결과에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인천 갯벌을 살리기 위한 시민 활동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며 인천 등 주요한 갯벌도 추가 등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2023년 3월, 60여 개 시민사회가 모여 인천 갯벌 세계유산 추진 시민협력단 '인천 갯벌 2026'을 발족해 활동 중입니다. 그동안 갯벌과 바다를 매립하며 산업단지, 신도시, 공항 등을 만들어진 역사를 가진, 그리고 현재도 갯벌 훼손 정책이 추진되는 인천에서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꼭 수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역 주민이 갯벌의 가치를 알아가고, 보전해야 한다는 당위를 넘어 보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지역주민을 조직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오염으로부터 바다를 지키기 위한 시민 활동도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직접 해양쓰레기 문제를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인천녹색연합은 국내외 해양쓰레기 정책 흐름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여론을 모으기 위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도

진행함은 물론, 고속도로변을 따라 하천으로 유입되어 결국 해양쓰레기가 되는 사각지대 쓰레기 현황 조사와 공론화를 통해 지자체에서 사각지대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만드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2024년에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더 큰 걸음으로 영종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활동을 비롯해 습지보호지역 내 낚시 등 여가 활동 금지를 위한 법 개정 활동, 사각지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활동가 한마디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갯벌과 바다를 살리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녹색 시민이 더 많아지도록,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활동하겠습니다.



알락꼬리마도요 서식지 보호를 위한 갯벌 정화활동 송도갯벌살림

# 갯벌의 가치, 생명의 가치

인천 바다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

정부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습지 보전 정책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한 습지목록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적으로 우수하고 보전 가치가 높음에도 아직까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지역이 다수입니다. 그중 전라남도 광양시 세풍습지는 멸종위기 1급 보호종인 매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보호종 2급인 노랑부리저어새, 흑두루미, 큰고니, 큰기러기 무리, 잣빛개구리매 등 11종 이상의 멸종위기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철새도래지이지만 습지보호지역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국가산업단지 배후 산단 개발로 멸종위기 보호종을 비롯한 야생동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거나, 멸종위기 또는 희귀 야생동식물이 나타나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세풍습지는 이 모든 조건을 갖췄음에도 관할 지자체의 무관심과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전남녹색연합은 2023년 세풍리 주민들과 함께 세풍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장 면담을 추진하며, 사계절 현지 조사를 제안했지만, 광양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사계절

활동가 한마디  
광양만의 갯벌과 연안의 옛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광양만에 유일하게 남은 연안습지인 세풍습지가 제대로 관리보전 된다면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습지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을 멈추고, 지구 생명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환경부에 건의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세풍은 인근 산단 개발과 도로 및 송전선로 등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논습지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세풍습지를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는 방조제 부속물로 관리하다 보니,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언제라도 세풍습지를 매립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전남녹색연합은 시민과 함께 세풍습지가 국가 차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2023년 11월부터 사계절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새친구 시민 모니터링단'을 모집하고 세풍습지를 찾는 새들의 '새친구'가 되어 세풍습지를 지키려 합니다. 습지를 찾는 새들과 습지의 생태를 기록하는 활동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긴 겨울, 세풍습지에서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녹색으로 품는 것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세풍습지에 모인 새친구 모니터링단

# 세풍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첫걸음

바다의 권리

전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수환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캠페인

무등산국립공원부터 장록국가습지까지 연결되었던 생태축은 도시의 성장과 개발속에서 도로와 복개하천으로 서서히 단절되었습니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더 많이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은 하천을 덮어 복개했고, 산을 밀어 더 넓은 도로와 더 높은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일인가 고민했습니다. 직접 걷고 보고 느끼며 걸어보기 위해 '무등에서 장록까지' 생태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무등산을 시작으로 소태천과 광주천, 도심 속 철도 숲길 푸른길과 영산강의 생태와 문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심 속 첫 국가습지인 장록국가습지는 광주전남녹색연합이 주축하게 되었던 공간과 주제로, 하천은 버려진 공간이 아닌 생명이 탄생하고 살아가는 곳을 지역주민과 함께 활동하며 국가습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생태 탐방을 통해 그동안 미처 볼 수 없던 공간과 역사를 확인하며, 도심 속 동식물의 안락한 서식처 회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등산의 '너와나목장'은 사유지였지만 국립공원에 땅을 매각하며 보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푸른길'은 기존 선로를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했고, '소태천'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 광주천에 남은 복개 도로 역시 생명이 살아가기 어려운 공간에서 점차 생태적인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하겠습니다. 2023년 이 무등산국립공원에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평두메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 소식인데요, 2020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평두메습지에는 낙지다리, 벼풀, 개대항과 같은 희귀식물과 수달, 담비, 삿, 팔색조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소쩍새, 솔부엉이, 원앙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며, 특히 큰산개구리의 집단 서식지로 중요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또한 전국 산림생태복원기술 대전에서 2021년 우수상을 받는 등 생태복원의 우수한 사례로 꼽혔습니다. 이에 광주전남녹색연합은 광주광역시 첫 번째 람사르습지 지정 추진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육상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국제적 목표에 맞게, 약 10% 정도로 기준에 한참 미달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보호구역 지정 확대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활동가 한마디  
생물다양성을 연결하는 작업은 녹색뿐만이 아닌 시민 모두의 시간이었습니다. 도심에 회색의 색채가 더해지는 것이 아닌 초록의 색채가 더해질 수 있게, 더 많은 공간에 다양성이 넘칠 수 있게 우리의 목표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무등에서 장록까지, 연결을 되찾기

바다의 권리

전남녹색연합

정우민



고마나루를 지키기 위해 활동가들이 수중 녹성을 진행하는 모습

우리 강은 지금 단단한 장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현장을 다니며 4대강 사업의 폐해들을 눈과 귀, 손과 발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금강은 세종보와 공주보를 5년간 개방했고 강이 스스로 몸을 회복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흰수마자, 수달, 흰목물떼새 등 4대강 사업 이후 강을 떠났던 뚝 생명들이 다시 금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금강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2023년, 정부는 그간의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또다시 4대강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금강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고, '자연성 회복'을 기조로 세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말장난 수준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공청회에 쫓아가서 항의했고, 반대의견을 전달했으며, 절차상 문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활동가들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거버넌스에

참여한 이들은 고소 고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의 의견은 공식적으로 다루지지도, 수렴되지도 않았습니니다.

5년간 개방으로 가까스로 회복된 공주보의 고마나루는 그간의 약속이 무색하게 다시금 물에 잠기고 펄밭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공주보 수문이 닫히는 걸 막기 위해 금강 고마나루에 들었습니다. 강물이 가슴께까지 차오르도록 약속을 이행할 것과 수문 개방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강도 사람도 어떤 생명도 아랑곳하지 않고, 4대강을 정쟁 삼아 옹호하는 정권의 정당성 보위를 위해 수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공주보 고마나루의 아름다운 금모래는 사라지고, 악취 나는 펄이 가득 덮여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강을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야 할 착취의 대상으로 봅니다. 댐을 건설하고, 하천 바닥을 준설하면 더 안전하고 유용한 강이 된다고 합니다. 세종보와 공주보 재가동을

위해 중장비들이 강으로 들어옵니다. 흐르는 강을 막아 세우고, 강의 뚝 생명들을 내어쫓고 수상스포츠를 즐기고, 수륙양용차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거짓말이고 환상에 사로잡힌 망상입니다. 악취 풍기는 녹조가 창궐하고, 물살이들이 떼죽음을 당한 수년 전의 진실을 외면하고 무시한 채 기득권의 명분만 옹호하고 있습니다. 개발보다 강 자체의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 정상화'라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된 댐 건설, 하천 준설과 같은 '포스트 4대강' 정책들을 막아낼 것입니다. 졸속으로 취소된 보 처리 방안을 복구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자연성

회복 방향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활동가 한마디  
금강은 흐르고 굽이지며 살아갈 권리가 있고, 인간은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강을 사랑합니다. 또 존중합니다. 아무리 막아서도 끝내 흐르고 굽이치는 강의 곁에 우리는 기어코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장벽을 건어내고, 우리 강이 마음껏 굽이칠 때까지.

우리 강, 장벽을 걷어내고  
마음껏 굽이치게

바다의 권리

대전광역시 녹색연합

인도훈 활동가

2023년은 지구가 타오르는 한해였습니다. 지구 연평균 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수면 일평균 온도도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관측 이래 최고값을 매일 갈아치웠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2022년에 비해 0.23°C, 1981년~2020년 평균값에 비해서 0.54°C가 올랐습니다. 바다의 온도가 1°C 상승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체온이 10°C 오른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2023년의 바다는 열병을 앓는 중입니다. 그야말로 끓는 바다의 시대가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다가 급격히 변화한 2023년, 시민 과학자의 기록과 감시를 통하여 제주 바다, 나아가 전 지구적 해양의 생태적 회복력을 되찾기 위해서 녹색연합의 해양생태팀이 전문기구로 독립했습니다. 파란은 '시민과학', '해양생태계 보호', '해양보호구역 관리·확대', '생물다양성 지키기' 등을 주요 키워드로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매월 진행된 제주해양포럼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부터 해양보호구역 관리, 해상풍력과 수용성, 조수웅덩이 속 생명, 제주 산호 등 제주 바다의 주요 환경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하며 사회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창립기념 제1회 해양시민과학자포럼에는 남방큰돌고래, 제주 바다 어류, 백령도 점박이물범, 제주 연안 바닷새, 해양쓰레기, 연산호 등 우리를 둘러싼 바다, 그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시민 과학자의 기록 사례를 확인하고 해양시민과학의 내용과 방식 그리고 정책 변화를 이끌기 위한 노력을 교류했습니다. <기후 위기의 맨 앞, 제주 바다의 증인들> 컨퍼런스에서는 기상학자, 기자, 생활사 연구자, 어촌계장과 해녀, 뮤지션, 해양과학자, 생태 예술가 등 다양한 발원자가 제주 바다의 과거와 현재를 증언했습니다. 바다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을 부단히 찾아 나선 2023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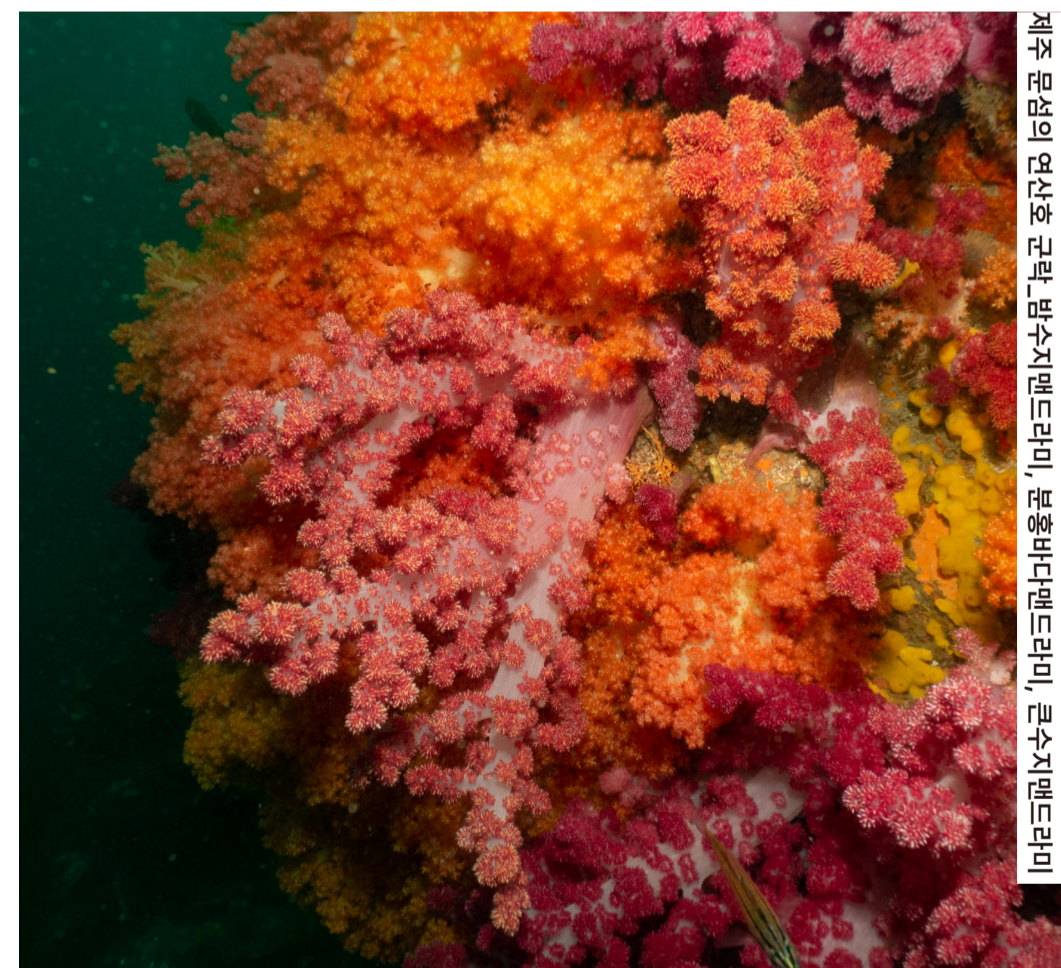
기록을 통해 제주 산호의 존재와 가치를 알리는 활동도 지속했습니다. 산호연구자, 조사전문가, 지역 다이빙 스포츠 힘을 합쳐 시민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2회차인 산호 학교는 다이버들과 함께 제주 산호에 대해 깊게 공부하고,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산호탐사대를 운영하여 천연기념물이자 해양보호구역인 제주도 문섬·범섬의 산호 생태계의 변화상을 조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0여 명의 산호탐사대원이 18회 조사를 통해 총 68종의 산호 종을 기록하였고 미기록 산호 종의 서식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산호 간 서식지 경쟁, 기생생물로 인한 피해, 낚시 피해, 백화현상 등 129건의 위험요인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계획,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있도록 관제기관에 자료를 전했습니다.

2022년 6월 녹색연합 해양생태팀(현 파란)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관광잠수함의 연산호 군락 훼손 논란'이 운항 심의와 불허 결정으로 일단락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녹색연합이 제기한 산호 군락과 수중 암반의 광범위한 훼손, 절대보호구역의 불법 운항과 훼손 등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관광잠수함의 운항을 중단하는 것이 활동의 목표는 아닙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관광잠수함 운항의 대안을 찾고, 문섬·범섬 일대 천연보호구역을 포함하여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방안이 공론화되도록 활동할 것입니다. 2024년 파란은 산호탐사대와 더불어 바다숨탐사대를 운영하여 시민 과학자 주도의 탐사 활동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해양시민과학자포럼, 제주바다의 증인들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협력자를 만나고 의제와 현안을 발굴하여 전환을 모색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쌓은 기록을 근거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양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이 시작한 파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후원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가 한마디  
2023년을 돌아보면 운동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응원으로 파란의 시작이었던 2023년이 무탈히 지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과 마음을 소중히 기억하려 합니다.



해녀, 프리랜서, 학생, 직장인, 스쿠버다이빙 강사 등 총 30여명의 산호탐사대원



제주 문섬의 연산호 군락. 범섬차면드래미, 문섬차면드래미, 큰수면드래미

이제는 바다의 시간,  
파란을 시작하다.

바다의 권리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신주의 활동가

기후 위기와 대기오염, 방사성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 그 여정을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에 담았습니다. 녹색연합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함께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재생 에너지자립방안)이란 이름의 에너지전환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에너지전환을 위한 몇 가지 전제와 어떤 경로를 제시했는지, 시나리오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햇빛과 바람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발전설비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모듈, 이제는 100미터를 훌쩍 넘기는 풍력발전기 날개 등을 만들기 위해 자원을 채굴해야 하고, 또 햇빛과 바람이 불지 않는 때를 위해 배터리 등에 저장하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석탄 발전이나 핵발전보다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하고 안전한 태양광과 풍력발전이지만, 발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채굴하거나 공정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훼손하고 오염하는 일은 대부분 지구 남반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기가 들어설 부지도 필요합니다. 녹색연합이 에너지전환의 첫 번째 전제로 에너지 수요 감축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이번에 제시한 시나리오는 이제까지 정부나 여러 기관에서 제시한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에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탈핵 로드맵을 담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이란 개념, 즉 전력을 많이 쓰는 수도권 같은 지역이 다른 지역에 전력 이용을 의존하면서 벌어지는 지역간 에너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전력 소비가 적고 비교적 외진 해안가에 발전소를 짓고 산업 및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전력을 송전하기보다 지역에서 필요한 전력은 지역에서 생산해서 사용하는, 지역 에너지자립 개념을 도입한 거죠. 전력 소비가 별로 없는 산지에 풍력발전 설비나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고 이것을 대도시로 송전하기 위한 과정에서 숲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지역에너지 자립이라는 원칙은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당한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녹색연합이 줄곧 견지해온 입장입니다.

그럼, 에너지전환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먼저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석탄 발전 가동을 멈춥니다. 2035년까지 위험한 핵발전소도 하나씩 폐쇄해 나갑니다. 화석연료인 LNG 발전도 2040년까지는 종료하고, 내연기관차도 운영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종료되는 발전소들을 태양광과 풍력발전기들이 대체해 나가는데, 그러려면 꽤 많은 태양광과 풍력발전기가

필요합니다. 이 발전기들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세우는 것이지요. 석탄뿐만 아니라 열 난방, 수송을 위해 사용되던 석유, 가스 등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만든 전기에너지로 전력화하기 위해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는 제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과 바람은 청구서를 보내지 않지만, 그를 에너지화하는 설비는 유한하고 '자원 채굴'과 '태양광, 풍력 발전소 부지'라는 청구서를 받아 들고 지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로 바뀌어나갈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올해 진행했던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수립 활동이 9개의 에너지 권역을 나누고 각각의 권역이 재생에너지로 자립할 방안을 제시했다면, 2024년에는 하나의 권역을 모델로 정해 그 권역이 에너지자립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로드맵을 세우는 활동으로 이어가보겠습니다.

활동가 한마디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작업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는 지역에서 어떻게 에너지 자립을 꾀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만들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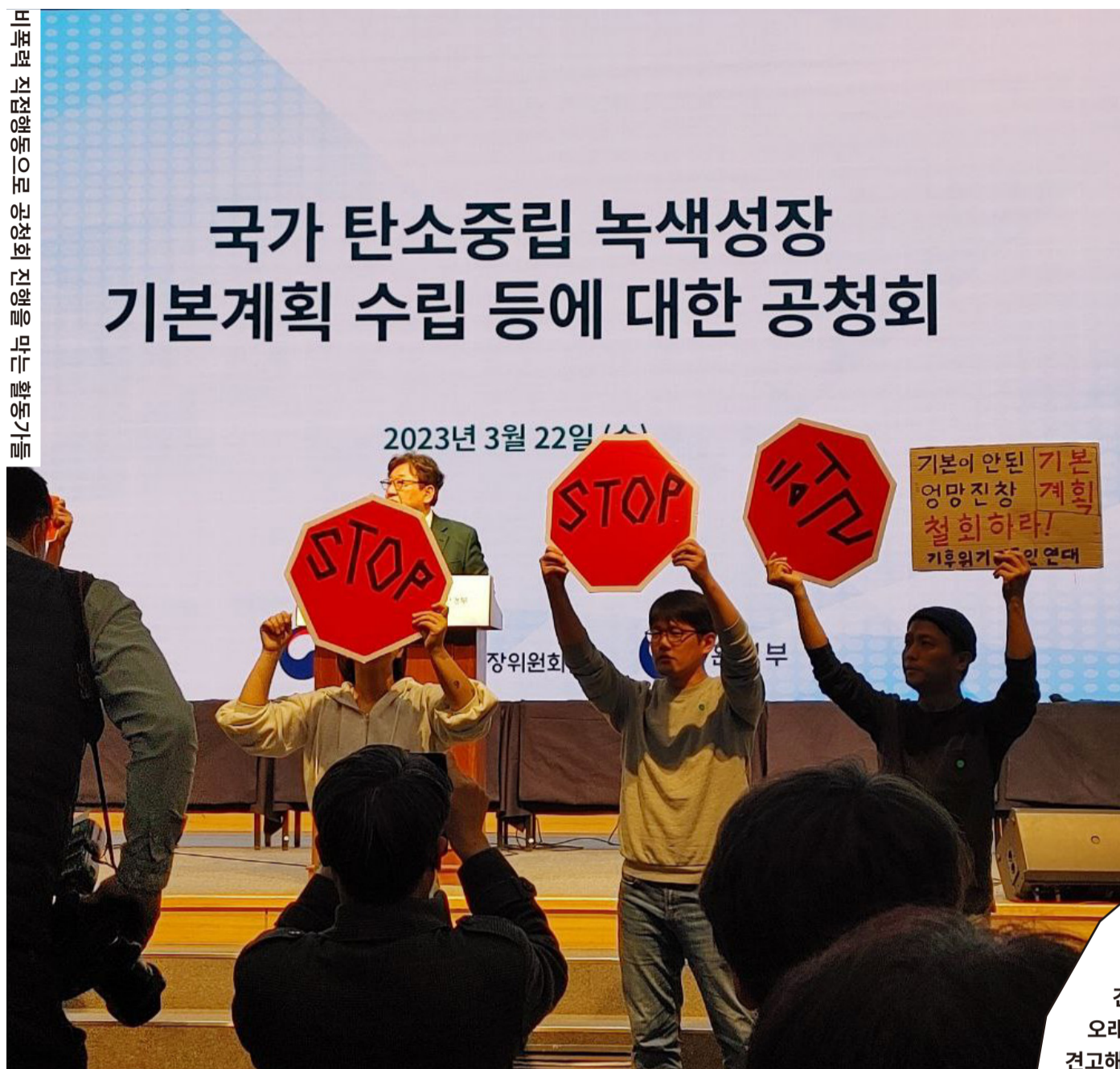
풍력발전기의 날개를 운반하고 있다

# 에너지전환의 원칙과 방향을 세웁니다.

하늘의 권리

탄소중립표준기부금

임성희 팀장



도쿄도립 전립대학에서 열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기후행동 캠페인



활동가 한마디  
얼마전 책을 읽다가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낡은 세계의 깃더미 위가 아니라, 그 세계의 틈새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 기후위기를 일으킨 오래된 세계, 기후위기를 방관하는 낡은 시스템은 여전히 견고해 보이지만 아무리 견고한 성벽도 틈이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숨은 틈새를 찾아 그곳에 풀씨를 심겠습니다.

2023년 초, 유엔 IPCC의 6차 종합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향후 10년의 행동'이 기후 위기 대응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비슷한 시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탄소중립 계획이 나왔습니다. 바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기본)'입니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현 정부의 임기 이후로 떠넘기는 등 향후 10년을 '허비하는' 계획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업의 감축 책임은 14.5%에서 11.4%로 크게 줄었습니다. 산업 부문이 전체 배출량의 절반 이상이라는 점에서 기후정의에 크게 어긋나는 일입니다. 재생에너지 목표는 줄어들고 기-송-전-핵발전 확대를 고수합니다. 더군다나, 이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 시민사회 등은 배제되었습니다. '기후정의'는 안중에 없는, 녹색 칠을 한 기업 편향의 '성장' 계획. 그야말로 '탄소중립 포기 기본계획'일 뿐입니다.

녹색연합을 비롯한 많은 기후 운동단체와 시민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토론회를 열어 탄기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직접 찾아가고, 공청회장 단상 앞에서 직접행동을 했습니다. 비록 탄기본은 대부분 정부의 초안대로 확정되었지만, 좌절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힘을 계속 키워나간다면, 언제든 보다 나은 정책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대규모 기후 행동이 조직되었습니다. 4월에는 세종시에서 열린 '414 기후정의파업'에, 9월에는 서울 시청, 광화문, 용산 일대에서 열린 '923기후정의행진'에 많은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환경, 여성, 노동, 장애인, 평화 등 여러 시민사회 운동단체와 새만금, 삼척, 가덕도 등에서 싸우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습니다.' 함께 살기 위해 일상을 멈추고 모여서, '기후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를 무시한 채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현실에 맞서 우리의 힘과 의지를 더욱 키웠습니다.

녹색연합은 기후위기가 벌어지는 현장, 그 안에서 살아가는 당사자들의 삶에 주목합니다. 전국에서 17명의 농민을 만났습니다. 최일선

당사자라고 불리면서도 소외되던 농민들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피해'를 넘어 어떤 대안을 만들며 고군분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 <모두를 살리는 농사를 생각한다 - 17인의 농민이 말하는 기후위기 시대의 농사>를 출판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첫걸음입니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는 시기입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녹색연합은 공동체의 주체로서 정치를 함께 변화시켜 갈 '기후 시민'을 만나려 합니다. OECD 풀씨를 면하지 못하는 재생에너지는 더 정당한 방식으로 더욱 빠르게 확대되어야 함을 알리려 합니다.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산업단지, 철도, 학교 등 유희부지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특히 국가, 지자체, 공기업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설 수 있도록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 후퇴와 후퇴, 그럼에도 한 걸음씩

하늘의 권리

본부 기후에너지팀

윤영진 팀장



산부서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공사 차량을 막고 있는 활동가

2023년 9월 12일, 두 시간동안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를 멈췄습니다. 녹색연합을 포함한 7개의 기후환경단체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장 입구를 가로막는 비폭력 직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공사장 길목에 선 활동가들은 “삼척 석탄발전소 공사 중단”, “국회의 탈석탄법 제정”을 요구하며 온몸으로 기후 악당 대한민국의 실상을 우리 사회에 다시금 알렸습니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포스코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곳입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 답습니다. 2018년부터 “더 이상의 석탄발전소는 필요없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라고 솔하게 외쳤지만, 포스코와 정부는 줄곧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이러한 침묵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녹색연합은 시민과 함께 직접 석탄발전소 공사를 멈춰 세운 것입니다. 비록 단 2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며 성장과 이윤만을 좇는 정부와 기업의 폭주에 조금이나마 제동을 걸었습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석탄발전소 공사가 멈춘 만큼, 기후 위기의 속도를 지연시킨 것이지요. 이러한 우리의 작은 시간과 발걸음이 모여, 결국에는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를 퇴출시키고 기후 위기를 유발하는 견고한 화석연료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겁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녹색연합은 시민과 함께 탈석탄 법안 제정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2022년 9월, 시민 5만 명이 동의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회 입법 청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후속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탈석탄법 제정 청원에도 국회의 움직임은 느리기만 했습니다. 보다 못해 시민과 함께 자체 법안을 만들어 냈고, 2023년 8월 신규석탄발전 중단법(정의당 류호정 등 11명 공동발의)을 국회에서 공식 발의했습니다.

활동가 한마디  
기후운동을 위한 과감하고 도전적인 상상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일단 현재의 위기를 넘어설 (나만의)유토피아를 자주 그려보겠습니다.

시민 자체 법안을 활용해 국회 주요 정당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국회 밖에서 230일 넘게 이어진 시민들의 릴레이 1인 시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유권자 행동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석탄발전 사업의 퇴출을 염원하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의 전망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삼척 석탄발전소 2기 모두가동이 예정되어 있고,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의 제정 여건 또한 밝지 않습니다. 올해 4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의 영향도 무시 못 할 변수입니다. 그럼에도 지지치 않고, 시민과 함께 이어온 여러 발걸음이 큰 힘이 되어 촉발될 수 있는 계기를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2024년에도 석탄 발전을 끝내 퇴출시킬 디딤돌을 다시 쌓아보겠습니다.

하늘의 권리

# 석탄발전소 공사를 멈춘 2시간

본부 기후에너지팀

박수홍 활동가

녹색연합 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새가 유리창을 인식하지 못해 부딪혀 죽는 ‘유리창 새 충돌 문제’가 더 이상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녹색연합이 유리창 새 충돌 저감 캠페인인 ‘새:친구’ 활동을 2019년부터 꾸준히 이어오는 동안 다행히 법 제도도 조금씩 바뀌었고 언론에서도 드물지 않게 이 문제를 다뤄주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인공구조물에 부딪히거나 추락하여 죽는 생명이 없도록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필요 조치를 시행’하게끔 개정되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일일 텐데요. 녹색연합 새:친구들이 지난 5년 동안 태안, 서산, 제주, 용인 등 곳곳에서 유리벽에 손가락으로 하나씩 꼭꼭 눌러 붙인 스티커들이 점점이 이어져 새를 살리고 드디어 법을 바꾸어 낸 것입니다! 바뀐 법이 시행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새가 유리창에 부딪혀 죽지 않게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관리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처벌 등 강제조항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과연 법 개정에 맞추어 지자체들이 잘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고, 시행 한 달 전인 2023년 5월에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자치구가 이전까지 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향후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단 3곳만이 저감조치를 시행했을 뿐,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15곳(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도봉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구)을 포함하여 자치구 대부분이 저감조치를 시행한 적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종로구는 아직 세부 계획 수립 전이지만 관련 법 개정 내용을 관계부서와 공유하며 추진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금천구는 서울시 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자못 아쉬운 답변이었지만 아직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이었기에, 앞으로는 조금씩 달라질 거라 믿으며 각 자치구 담당자에게 ‘새 충돌 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은 개정법 시행 1주년을 맞는 2024년 6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후 자치구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다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니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촉구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서울시 자치구 모니터링, 온라인 캠페인과 더불어 올해에도 새들이 많이 죽는 현장을 찾아 더 이상 유리창에 부딪히지 않도록 점 스티커를 붙이는 ‘새:친구’ 활동도 함께 했습니다. 태안 77번 국도 송남교차로 부근 투명 방음창 약 110면에 새 충돌 저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스티커 부착에 앞서 관련 교육과 모니터링도 빼놓지 않았고요. 관련 활동이 처음이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n번째 참가자, 개인 프로젝트로 새 충돌 저감 활동을 해 왔던 참가자들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그만큼 이 문제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겠죠. 새들이 하늘을 마음 놓고 날지 못하는 이상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2024년에도 새:친구 활동은 계속됩니다.

활동가 한마디  
작은 점을 이어 새의 길을 되살리는 새:친구들 덕에 올해도 든든하게 활동했습니다.



새:친구들이 새 충돌 저감 스티커를 부착하는 모습

하늘의 권리

# 작은 점이 아름답다

본부 이음팀

유세미 활동가



2023년 전북녹색연합은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인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막아내고 수라갯벌을 비롯하여 매립되지 않은 새만금 갯벌을 보존하기 위한 운동에 집중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앞 새만금 신공항 철회촉구 천막 농성장에는 전국 곳곳의 여러 동지가 지킴이로 참여하여 선전전을 700일 넘게 매일 이어오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공사 업체 입찰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민원 행동,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서명 운동,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및 갯벌 복원 촉구 기자회견·월기대회·민원 행동, 새만금 사업의 생태적 대전환을 위한 워크숍·강의·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문제와 갯벌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더불어 시민과 함께 수라갯벌에 들기, 수라갯벌 생태 조사, 저어새 번식지 조사, 영화 '수라' 상영회, '한국의 갯벌' 생태기행 등 전국 곳곳의 다양한 운동 주체와 대중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전후로 대회를 보이콧하며 대회 중단을 촉구하고, 새만금 사업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근본적 원인이 새만금

간척사업에 있다는 사실을 낱알이 드러나게 하였고, 전국적인 비판 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새만금 신공항을 비롯한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이끌어냈고, 예산을 삭감했을 뿐 아니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계획을 발표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토건 자본만을 위한 매립 중심의 맹목적 새만금 간척 사업에 제동을 걸고, 새만금 사업의 생태적 대전환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낸 큰 성과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의 계기를 정부가 또 다른 이름의 개발사업으로 바꿔 생태 학살을 자행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4년에는 정부가 새만금호 해수 유통 방안을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배수갑문 증설 등을 통해 -1.5미터 관리 기준 수위 폐기와 상시 해수 유통으로 전환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정부의 새만금 SOC 사업 재검토를 통해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철회시키고, 습지 보호구역 지정 및 세계 자연유산 등재 등을 통해 새만금 갯벌을 보존·복원하도록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수라갯벌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뒷부리장다리물떼새

활동가 한마디  
싸워야 할 때 싸운 이들이 서로 연결되고 새로운 불씨가 되어 또 다른 운동을 점화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공항 말고 갯벌, 전쟁 말고 평화, 자본 말고 생명!

하늘의 권리

전북녹색연합

김지은 사무국장



환경부와 정책 후퇴를 구민하는 퍼포먼스

활동가 한마디(허승은)  
2024년, 시민의 목소리와 힘이 커질 것이라 믿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사회,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요!

언제까지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에만 기대어 일회용품을 줄여야 할까요.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고 개선해 왔고, 시민 인식 또한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자원순환 정책은 이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이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 감사원은 법 취지대로 1회용품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 시행하도록 환경부에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와 더불어 컵줍기 시민 프로그램을 통해 1회용품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1회용품 보증금제를 지자체가 자율로 시행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도가 지역별 선택사항이 된다는 것은 1회용품 사용 규제의 책임을 환경부가 아닌 지자체로 전가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2023년 11월, 환경부는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규제 완화에 따른 '환경적 영향'에 대한 근거와 자료가 없고, 제도 시행일을 불과 2~3주 앞두고 결정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퇴보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환경정책기본법에도 명시된 '사전예방의 원칙'을 준수하고 환경 정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시민의 힘이 더 필요합니다.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의 야구장을 조사했습니다. 스포츠 경기시설 중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한다는 통계자료를 입증하듯, 야구장에서는 많은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종이, 캔, 플라스틱, 비닐 등의 쓰레기가 하나의 쓰레기통에 혼합되어 배출되었습니다. 이 문제 개선에 대한 입장을 10개 구단에 질의했으나, 6개 구단은 묵묵부답입니다. 스포츠 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환해야 하며, 분리배출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는 야구장을 운영하는 구단의 역할입니다. 2023년에는 해당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했다면 올해는 더욱 적극적으로 구단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플라스틱 생산 저감 없이는 플라스틱 오염도 끝나지 않습니다.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제정을 결의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적 관리 방안이 포함되도록 2023년까지 3차에 걸쳐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가 열렸습니다.

2024년에는 4차, 5차 회의가 진행됩니다. 녹색연합은 유엔환경계획(UNEP) 공인 비정부단체로 등록하여

유엔환경총회 등 국제회의 및 협약 대응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5차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실효성 있는 협약이 제정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전자폐기물 문제 개선도 시급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전자폐기물이 총 5,740만 톤<sup>1</sup>에 달하지만, 전자폐기물 재활용률은 17.4%에 불과합니다. 신제품 출시, 잦은 교체 등으로 전자폐기물이 늘어나는 속도는 전 세계 인구성장률보다 3배나 빠른 상황입니다. 2023년 녹색연합이 조사한 결과, 가구당 평균 11.5개, 1인당 4.3개의 충전선과 충전기를 소유합니다. 사용하는 전자기기의 충전 규격이 제조사, 모델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충전단자 규격을 통일하는 법률이 개정된 성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위한 제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전기전자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손쉬운 수리가 가능하도록 생산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쓰임이 다한 폐기전을 안전하게 수거하는 시스템을 확대하는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활동가 한마디(진예원)  
지난 한 해 다양한 현장을 누비며 쓰레기 없는 사회를 향한 시민의 노력을 보았습니다. 그 노력이 무색하게도 쓰레기 정책은 참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사회를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시민임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후퇴하는 자원순환 정책, 시민과 바로 잡겠습니다.

우리의 권리

본부 녹색사회팀

허승은 팀장

진예원 활동가



대구시민야구장에 걸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현수막

활동가 한마디  
제로웨이스트 실천은  
야구장에서!

지역 연구팀을 응원하는 수천, 수만 명의 응원 함성은 저절로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스트레스 해소와 해방감을 줍니다. 우리가 야구를 즐기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간식과 탄산음료는 야구의 재미와 함께 피크닉의 즐거움도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먹다 남은 음식물부터 플라스틱 일회용품들까지 쓰레기는 넘쳐흐릅니다.

유례없이 쓰레기종량제를 잘 실천하는 대한민국에서 유독 스포츠 경기장에서만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군중심리와 지나친 해방감이 작동하는 것은 아닐까요?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습관이 되어 경기장에서 분별없이 쓰레기를 버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GDP만 높다고 선진국으로 평가받기는 어렵습니다. 선진국에 대한 각종 평가 지수가 있지만,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눈에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우리가 선진국인으로 보이진 않을 것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 판로가 막히자 수익에 눈이 먼 폐기물 업체들이 만든 쓰레기 산이 CNN에 보도되는 등 국제적

마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나 지자체의 재활용 정책은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시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구경북녹색연합은 대구지방환경청, 아마추어 야구와 소프트볼을 대표하는 야구·소프트볼 협회와 협약을 맺고 제로 웨이스트 실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야구 대회 개최와 더불어 초·중·고·대학 야구팀, 리틀야구단, 스포츠클럽, 사회인 야구 동호인, 소프트볼 팀 등의 지도자, 선수와 함께 “야구장에서 플라스틱 생수병 사용 줄이기” 운동으로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이어나갔습니다. 소위 대프리카로 상징되는 대구의 여름은 불편함을 극복하기 어렵지만 지도자들부터 텀블러 사용을 실천하고 선수와 학부모가 함께 실천하기 시작하니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천 주변 야구장에서 야구계임을 하는 사회인 야구 동호인들에게는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성과를 얻었습니다.

어떤 영화에는 스포츠 선수들이 다회용 물병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구지역 아마추어 야구선수들의 제로 웨이스트 실천이

좋은 모델이 되어 다른 지역 야구, 더 많은 스포츠 분야, 그리고 더 나아가 문학·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제로 웨이스트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리

## 쓰레기 제로, 야구장부터

대구경북녹색연합

김주영 이사

‘야생 : 자연에서 저절로 자람, 또는 그런 생물’  
‘야생하다 : 야생의 가치를 되찾다.’

지난 3년간 녹색연합은 ‘기후위기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기후 위기와 관계된 다양한 연사들을 그린컨퍼런스를 통해 만나왔습니다. 그 이후 기후 위기의 징후를 맞닥들이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생태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는 잃어버린 자연과의 연결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녹색연합은 우리 안의 ‘야생’을 깨우고 잃어버린 자연과의 연결성을 회복하기 위해 2023 그린컨퍼런스를 ‘야생하다’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지리학자 공우석 님, 식물분류학자 허태임 님, 녹색연합 전문위원 서재철 님, 가수 하림 님, 청주동물원 수의사 김정호 님, 지구법학자 겸 변호사 정혜진 님은 각 분야에서 바라본 ‘야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구, 자연, 야생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생명체의 ‘살아있음’은 자각된 나를 통해 볼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복잡한 생장 과정을 통해 경이로운 야생을 경험하고, 인간과 식물 모두 동등한 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야생의 경이로운 뒤편에 파괴되는 야생도 만나보고 우리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참여해야 야생의 공간을 지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뜨거워진 가슴은 야생처럼 다양한 결을 가진 노래와 이야기를 들으며 환기할 수 있었는데요. 하림의 나무를 동일한 주제로 바라보고 작곡한 ‘숲속 블루스’, 모든 삶을 위로하는 노래 ‘소풍’은 강연장과 분위기를 좀 더 맑게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일상과 가까운 동물원의 변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야생과 동물원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동물원이 야생동물과 멸종동물을 보호하는 대안적 공간으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는 새롭고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은 ‘모든 동·식물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인간 위주가 아닌 지구공동체의 공존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지구법학을 바탕으로 야생과 자연의 권리를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의 권리’를 제도화하여 생태위기 시대를 극복하는 즐거운 상상을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한 많은 시민들은 설문문을 통해 야생의 중요성과 가치에 공감했고,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함을 공감했습니다. 2024년에도 그린컨퍼런스는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자연의 가치와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민해보려 합니다.

활동가 한마디  
주위의 생명체에 귀를 기울이고, 생태와 지구를 연결할 수 있는 참된 ‘나’를 모두가 만나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모두를 연결하고 생태 위기를 극복할 힘을 줄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권리

## 우리 안의 ‘야생’을 깨운 시간

본부 그린포럼/컨퍼런스

정인수 활동가

한 해가 시작하자마자 녹색연합에 걸려 온 전화를 받았습다. 한 청소년의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딸이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며 중고 마켓에 팔기도 하고 주변에 나누기도 했는데, 그렇게 모은 수익금을 녹색연합에 후원하고 싶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후원 방법을 안내해 드렸지요. 그날 오후에 바로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글썄, 50만 원이 훌쩍 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다시 전화를 걸었고,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는 김에 쿡 집어 녹색연합에 후원하신 이유를 질문했습니다.

“녹색연합이 그래도 꾸준히 애쓰고 계시잖아요.”

활동가 한마디  
녹색연합 활동가로서 넘치게  
응원받았던 한 해였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가는 사람의 존재를 매 순간  
확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반짝이던 당신의  
목소리를 잊지 않을게요.

우리의 권리

## 혼자보다는 함께, 우리의 힘

본부 이음팀

배선영 활동가

이 한마디가 저에게는 후원금보다 더 큰 응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현장을 찾고, 가장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으며 포기하지 않는 녹색연합의 끈질긴 노력을 알아봐 주신 것 같았거든요. 생명을 지키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에 애임없이 쓰겠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음팀 활동가로 일하며 전화를 자주 겁니다. 뜻밖의 후원에 특별한 계기나 동기를 묻기도 하고, 정기총회나 창립기념행사처럼 꼭 참석하시길 권하기도 합니다. 야심차게 기획한 프로그램을 홍보하거나 긴급한 현안에 서명 또는 특별 후원을 요청하는 때도 있습니다. 전화를 거는 이유는 매번 달라도 마음가짐은 한결같습니다. 조금은 긴장하면서도 전화기 너머의 온화한 표정을 상상하며, 마치 소중한 벗에게 안부를 묻듯 한 음절 한 음절 우리의 거리를 좁힙니다.

항상 응원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애써지만 실패하기도 하니까요. 막아내지 못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전국 각지에서 삼 썩 날만을 기다리는 수많은 개발 사업, 기후 위기를 외면한 국가 계획...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었던 활동에 대해 비판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힘을 얻습니다. 바다로 망연히 팔팔 쏟아지는 후쿠시마 오염수 앞에서도, 또다시 시작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 저지 싸움의 예고에도, 사망을 조여오는 정부의 시민단체 탄압과 전례없는 압수수색에도 마냥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꾸준히’ 녹색연합을 믿고 지지하는 분들의 존재 때문입니다.

녹색연합 새친구 캠페인에 참여한 어떤 회원님의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당신과 녹색연합, 우리는 절망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하며, 혼자보다는 함께, 돈보다 생명, 개발이 아닌 보전이 당연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

교육기본법과 환경교육법(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후 위기를 비롯한 수많은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녹색교육센터는 생애주기와 사회적 역할별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마을 탐사프로젝트 숲이치(Easy)’는

기후 위기에 취약한 지역아동센터, 자연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과 종사자, 이들이 속한 지역사회를 생태적 관점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아이들은 숲과 마을을 탐사하는 활동을 통해 깃대종을 선정하고 알리며 마을 공동체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정서적 소진을 겪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도 워크숍을 통해 숲에 들어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숲에서의 긍정적인 경험과

교육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숲 활동을 자립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체형 환경교육>에서는 한동안 전염병과 극단적인 날씨로 모이기 어려웠던 성인 후기(노년기) 어르신들과 만났습니다. 지역 내 폐기물 문제와 자원순환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체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라도 지속해서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터놓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녹색의 교육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올해는 우리 주변의 환경과 일상적 삶을 기반으로 한 생태문화예술교육, 시민 활동가 양성, 지자체 공무원 대상 환경교육, 기업 임직원 대상 봉사활동 등 교육 활동을 통해 녹색의 가치를 확산하겠습니다.

활동가 한마디  
교육은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심은 씨앗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지 기대하며 2024년에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우도 울릉도 탐사중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10시경)

# 그럼에도 우리는 씨앗을 뿌리며

2023년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며 준비해온 활동들을 하나 둘 실행하는 해였습니다. 생태환경문화잡지 <작은것이 아름답다>는 창간 27년,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주제들을 발굴해 계절마다 <작아>를 펴냈습니다. 277호 ‘안녕 지구인’에는 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안부, 278호 ‘지구농사’에는 땅, 사람, 삶의 뿌리를 살리는 농민과 농업 이야기를 담았고, 279호 ‘섬’에서는 위태로운 섬의 생태와 가치를 확인했으며, 280호 ‘기준치를 묻다’에서는 ‘기준치 아래’라는 말에 숨는 사회 속에서 누가 기준을 만드는지, 누구를 위한 기준인지를 질문했습니다.

2023년엔 시민들이 함께 <작은것이 아름답다>를 읽고 이야기 하는 작아 읽기모임이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대면모임과 온라인으로 <작아>에 담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이야기하며 고민을 나눴습니다. “지구에 좀 더 오래 다정해지자는 다짐 하나를 <작아>를 통해 길어 올렸다.” “<작아>를 읽다보면 빌려 쓴 지구의 건강에 대해 환기하게 된다. ‘문제를 안다’는 것이 변화의 시작 아닌가.” “끊임없이 목소리 내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 이야기를 담아내는 책, <작아>를 많은 이들이 읽었으면 합니다.”

2023년은 지구환경 보고서 아틀라스 시리즈 출판프로젝트 5년 차를 맞아 <에너지 아틀라스>와

우리 삶의 바탕 농업을 주제로 한 <농약아틀라스>, <농업아틀라스>, <농식품아틀라스>를 펴냈습니다. 특별히 하인리히 빌 재단 홍콩 사무소와 함께 6월 14일 노무현 센터에서 출간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4년 만에 열린 대면 행사에서 얼굴 마주하며 이야기 나누는 소중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4년에는 <작은것이 아름답다>만의 목소리를 더 많은 시민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우리 사회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합니다. 창간 30주년을 앞두고 작은것이 아름답다의 녹색 출판과 생태환경 문화운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힘을 모으려 합니다.



활동가 한마디  
더디 오는 때, 더디 자라는 세상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다시 힘겨운 몸과 마음 보듬어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건, '함께 걷자' 말하는 벗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작아와 함께 지구에 다정해지기

우리의 권리 | 작아 읽기모임 | 작아 출판프로젝트 | 작아 편집주간

“2050년은 어떻게 될까요? 다 틀린 미래에 우리가 이렇게나 매달려야 할까요?” 최근 어느 월간지 편집자와의 만남에서 이런 자조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녹색연합이 문답을 일으켰다는 대꾸로 모두 한바탕 웃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생태계 위기, 기후 위기, 평화 위기의 소식들은 냉소의 유머 소재가 될 만도 하지요. 지구과학으로도, 정치로도, 앞으로 10년이 지구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경고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환을 더 늦출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지나며 전국 녹색연합 실무책임 활동가들이 함께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책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 첫째, 현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 역량을 키울 것, 둘째, 활동가 2인 이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살림 구조를 갖출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건강한 조직인지 스스로 점검해 녹색연합다운 운영 토대를 다지고, 서로가 서로의 자원이 되어 변화와 성장을 돕기로 원칙도 세웠습니다.

외부의 어떤 위기 상황에도 활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든든한 뒷배로 활동의 독립성을 지속하게 하는 힘! 넓고 단단한 팀워크! 바로 회원확대입니다. 2023년 전국 녹색연합은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공동 회원확대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녹색의 활동 현장과 일상을 연결해

활동 현장의 분투가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로 끝나지 않고, 회원이 되어 녹색연합의 팀을 넓히는 것이 목적이었지요. 조직별로 회원의 현황과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파악한 이후 온라인 SNS 계정도 정비하고, 도움을 받을 모금·홍보 전문가 네트워크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야생하다’라는 공동의 슬로건 안에 보존과 개발 사이, 공존과 책임 사이 우리가 대변해야 할 다양한 야생의 권리를 명분으로 담았습니다. 첫 시작이니 의미 있게 4월 22일 지구의 날부터 6월 5일 환경의 날까지 회원으로 함께 하자고 온라인 참여자에게 권유했지요.

첫 공동 회원확대 캠페인 결과는 어땠을까요?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도 회원가입은 3인에 그쳐 미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반응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장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활동하는 전국 조직으로서의 녹색연합을 알렸다는 점, 야생이라는 공통의 키워드로 회원 확대 지속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 다양한 세대의 반응을 확인해 녹색연합의 주 회원층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시도로 끝낼 수는 없었지요? 끈질기게 현장에서 우리가 대변하는 가치를 알려내듯이 각 조직별로 만들어낼 변화가 더 생생하게 드러나도록 다음 캠페인을 준비합니다. 온라인에만 국한하지 않고요, 내용도, 방식도

조직별로 더 구체화해보려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 2010년 녹색연합 회원들의 특별후원 모임 <강의 친구 365>를 떠올려 봅시다. 2년에 걸쳐 1억 6천여만 원의 기금을 모아내 4대강 현장팀의 활동을 지속하는 동력이 되었지요. 4대강 사업을 막아내지 못했지만, 토목공사 현장의 생태계 변화를 발로 뛰며 기록했고, 그 결과 홍수 피해를 줄이겠다는 4대강 사업이 강속기 사업임을, 그 실체를 폭로할 수 있었지요. 나아가 우리 강이 어떤 지역의 소유물 또는 정치의 수단인 되어서는 안 되며 생태계 자연성 회복이 곧 강의 본질임을 지금껏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4대강 활동으로 압수수색과 활동가 연행의 상황에서도 몇몇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 현장성과 회원의 뒷배에서 나왔습니다.

흐르는 강이 지역만의 전유물이거나 국립공원이 정치 야욕의 도구일 수 없듯이 한반도의 야생이 우리 모두의 공공재로서 권리를 누리며 마땅한 대접을 받을 때까지 생태위기 현장에서 맞서겠습니다. 2024년 녹색연합의 분투의 방향은 ‘야생의 권리를 지키는 전환’입니다. 변함없는 녹색연합 팀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어느 소설의 제목처럼, 녹색연합은 계속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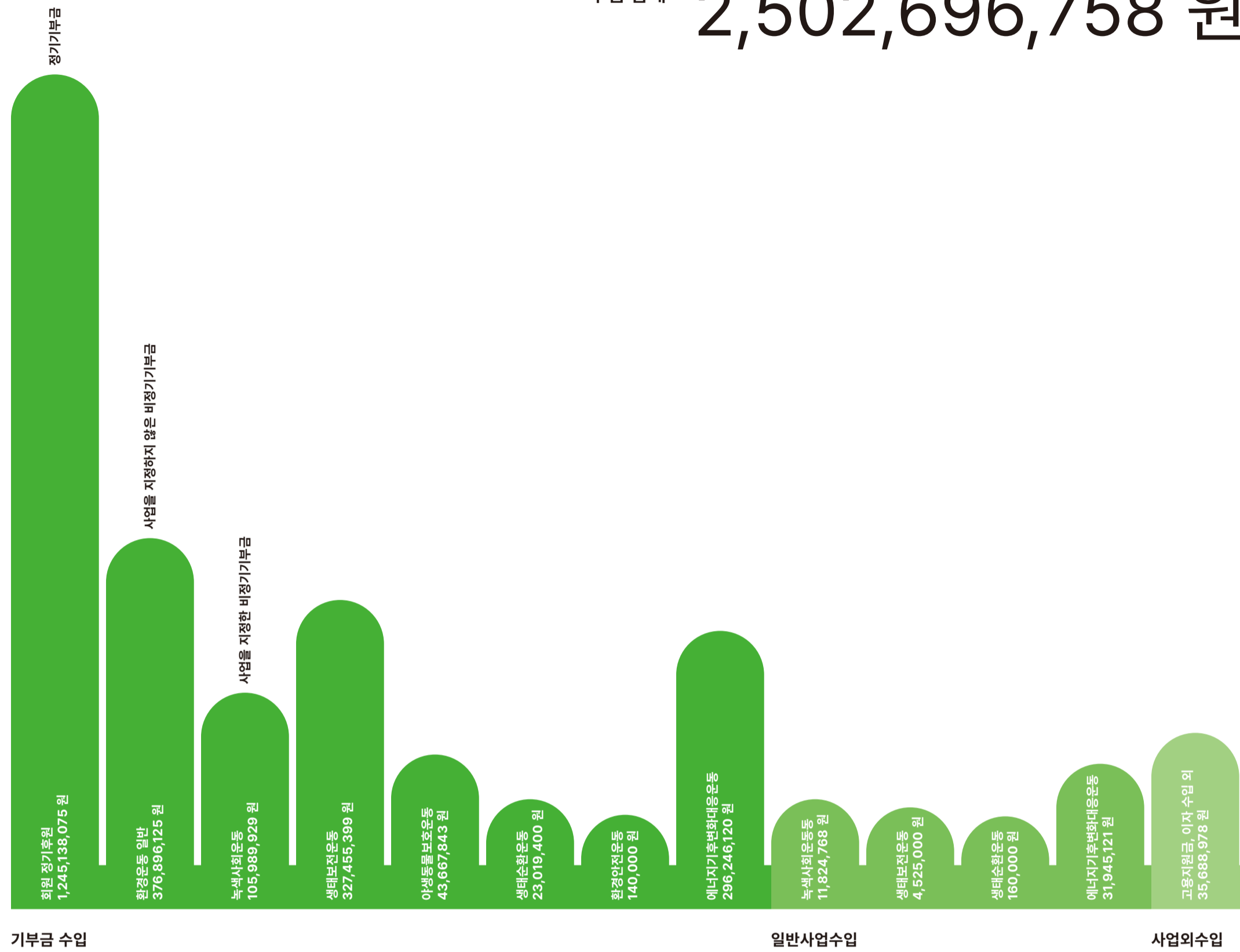


전국녹색연합 여름 수련회에 모인 활동가들이 923 기후정의행진 포스터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 녹색연합, 실패해도 계속해보겠습니다.

문극림 | 923 기후정의행진 | 923 기후정의행진 | 923 기후정의행진

수입 합계 2,502,696,758 원



기부금 수입 일반사업수입 사업외수입

COVID-19로 인한 혼란이 잦아들면서 점차 일상을 되찾아가는 듯하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한 해였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들은 점점 더 소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녹색연합의 가치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녹색연합은 절망 속에서도 움트는 자연처럼 어떤 외부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현장에서 녹색연합이 걸어야 할 길을 당당히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에 함께 걸어주시는 모든 회원과 시민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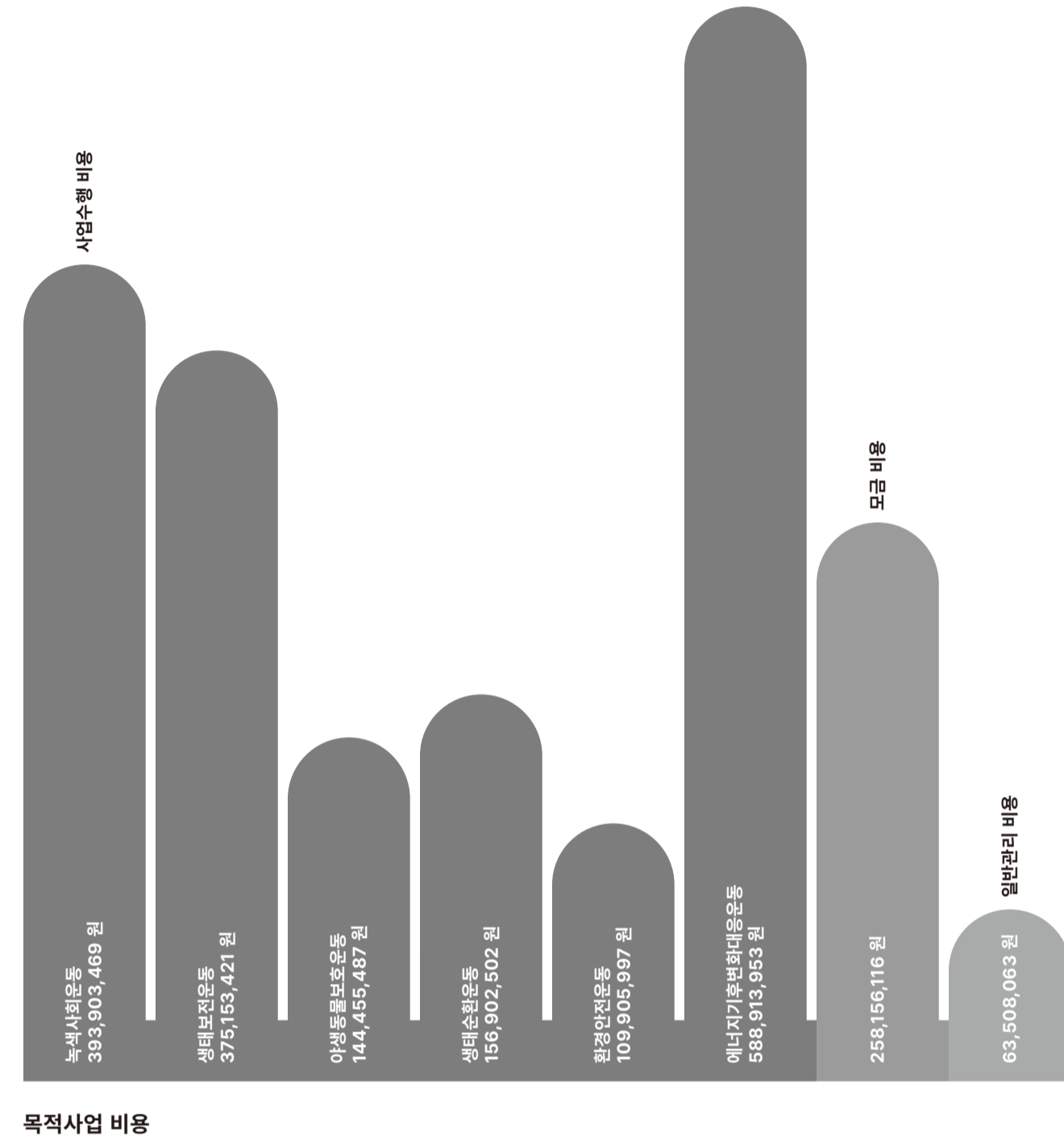
2023년 녹색연합 수입의 96.6%는 기부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회원의 정기후원금은 전체 기부금의 약 51.5%에 달합니다. 수입규모가 지난해보다 작아진 이유는 올해 기부금이 크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지난해 녹색사회연구소 명의의 건물 자산을 녹색연합 명의로 원상복귀시키면서 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탓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녹색연합 수입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정사업기부금과 일반사업 수입에서는 녹색연합이 핵심 목표로 삼은 <기후 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영역의 수입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공익재단의 지정사업기부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이 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 역할을

종료하면서 분담금 수입은 줄어들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와 탈석탄법 제정 신문광고를 위한 공동광고주 모금에 많은 시민이 함께 해주셔서 에너지기후변화운동 영역이 일반수입의 약 66%를 차지하였습니다.

녹색연합은 운영의 안정성과 활동의 독립성을 위해 정기후원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후원을 중단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정기후원자 수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약 1,500명의 신규회원이 후원을 시작하였고, 2022년 7월 이후 월 1억 원 이상의 정기후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출 합계 2,090,899,008 원



목적사업 비용 일반관리 비용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것은 녹색연합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수행 비용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육상/해양 생태계 보전과 보호구역 확대, 아생동물과 생물다양성 보호, 시민/환경 안전과 자원순환을 위한 모든 활동이 녹색연합의 목적사업입니다. 사업수행 비용은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30명 활동가의 급여를 포함해 현장 조사,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 캠페인 등의 활동비용으로 쓰입니다.

모금 비용은 회원가입과 후원을 요청하고, 회원과 후원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기금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회원 확대 캠페인과 후원자에 대한 모금, 회원과 후원자들에게 활동 소식을 공유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활동에 쓰이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정기 후원회비/기부금 등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용료 등에 지출됩니다.

일반관리 비용은 재정, 인사, 노무 업무와 사무실 관리 등 녹색연합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기본적인 법인 운영에 따른 비용,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정기총회를 비롯한 의사결정 체계 운영 등의 비용으로 지출합니다.

- \* 위 내용은 사단법인 녹색연합 본부사무처의 수입과 지출에 해당하며 사단법인 녹색연합의 결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사단법인 녹색연합의 외부 회계감사가 진행 중이며, 본부사무처와 7개의 지부로 구성된 사단법인 녹색연합의 결산은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 녹색연합의 건강한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
  - 녹색연합 재정 운영규정에 따라 재정을 계획대로, 짜임새 있게 집행합니다.
  - 해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검토와 조정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습니다.
  - 해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습니다.
  - 달마다 재정 현황을 보고서로 정리해 사무처장과 함께 점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승인 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모든 수입은 녹색연합으로 개설된 계좌에 예치한 후 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모든 지출은 녹색연합 법인카드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서장과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재정을 운영·관리하고, 관련 법에 의한 적법한 세무회계처리를 합니다

## 환영합니다

녹색연합은 1991년 창립하여 우리나라 자연을 지키는 환경단체입니다. 주요 생태축인 백두대간과 DMZ를 보전하고 야생동물과 그들의 서식지를 지킵니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현장을 감시하며 에너지가 정의로운 세상, 쓰레기가 없는 지구,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사회를 그려갑니다. 녹색연합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1. 녹색인 수칙

녹색연합에는 지구와 나를 사랑하는 지구인으로서 지켜야 할 <녹색인 수칙>이 있습니다.

- 모든 생명을 존중한다.
- 육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한다.
- 미래세대와 약자의 입장을 존중한다.
-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 열린 마음으로 토론과 과정을 중시한다.
- 섬김과 나눔, 아낌과 보살핌을 실천한다.
- 단순하고 소박하게 산다.
- 늘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느리게 산다.
-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연에 든다.
-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를 만들어 간다.

수칙제정 2001. 6. 23

## 2. 녹색을 살피기

녹색연합 활동가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가장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습니다. 산양의 흔적을 찾아 산으로, 산호를 보호하기 위해 바다로, 환경 분쟁의 현장으로, 어디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직접 뛰는 현장의 모습을 녹색연합 홈페이지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살펴보세요. 매달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구독해 다양한 환경 현안을 가까이 만나 보실 수 있어요.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에서 "녹색연합" 검색
- 녹색연합의 웹 소식지 <녹색희망>, 녹색연합의 활동을 꼭꼭 눌러 담은 <지구력 레터> 구독하기

## 3. 나와 꼭 맞는 활동 찾고 함께 지구 지키며 어울리기

녹색연합의 활동분야는 참 다양합니다. 활동보고서를 꼼꼼히 읽으며 나와 꼭 맞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녹색연합은 연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회원님을 만납니다. 황홀한 절경이나 환경 파괴의 현장을 직접 만나러 가고, 도란도란 모여 앉아 생활용품 만들고, 비건 요리를 함께 만들어 먹고, 기후위기에 대해 공부합니다. 정부나 기업에 환경오염의 책임을 묻는 활동도 함께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연중 기획되고 회원분들께 가장 먼저 안내 드립니다. 소식지 녹색희망, 뉴스레터, 문자, 카카오톡, SNS, 홈페이지 등 모든 창구를 통해 소통하고 있으니 함께해주세요!

## 4. 정기총회 참석하기

회원의 당연한 권리, 정기총회에 참석하세요. 정기총회는 매년 열리는 녹색연합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대의원 자격을 갖춘 회원이 모여 녹색연합의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올해의 활동 계획을 승인합니다.

대의원 자격은 가입한 지 1년이 지나고, 최근 1년 중 6개월 이상 후원을 유지하고 계신 분께 주어집니다. 총회에 참석하여 애정이 담긴 평가와 빛나는 의견을 더해주세요.

## 5.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제혜택 받기

녹색연합으로 보내주시는 회비와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은 연간 기부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의 15%(21년, 22년은 20%)를, 1천만 원 초과분은 30%(21년, 22년은 35%), 3천만 원 초과분은 24년만 한시적으로 4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공제 한도는 소득의 30%를 넘지 않습니다. 법인의 경우 소득 1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녹색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 개인 확인을 위해 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조회할 수 없으니,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12월까지 꼭 변경해주세요.

## Q 1. 내가 녹색연합을 후원한다고 지구가 살아날까요?

바로 당신이 녹색 세상을 만듭니다. 녹색연합이 백두대간을 탐사하고 울진 숲속의 산양을 조사하는 일, 핵발전에서 벗어나고 기후변화를 막는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 일, 녹색 삶을 실천하는 캠페인을 펼치는 일, 사람과 자연에 모두 이로운 환경 정책과 법을 만드는 일, 더 많은 녹색 시민을 만나고 활동가들이 더 큰 변화와 가치를 만들도록 돕는 일, 이 모든 일은 회원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의 후원이 모여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듭니다.

## Q 2. 내가 낸 후원금은 어떻게 쓰이나요?

녹색연합의 지출 비용은 목적사업비 항목이 가장 큽니다. 목적사업이란 '강령과 정관에 의거한 환경운동단체로서의 활동 목적과 목표를 위한 활동' 즉, 녹색연합의 일반적인 환경보호 활동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30명 활동가의 인건비와 출장과 조사비 등이 포함됩니다. 녹색연합은 회계담당자를 두고 재정운영 내규에 따라 재정을 집행하고 있으며, 회계 내용은 법적인 공시절차에 따라 공개되고 정기적인 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국의 녹색연합을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녹색에 관심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변에 권하는 것, 녹색연합에 가장 힘이 되는 또 다른 '후원'입니다. 아직 녹색연합을 모르는 지인이 있다면 회원가입을 권유해 주십시오. 회원님이 믿고 후원하는 단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녹색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뿌듯한지 직접 전해주세요. 지금 보시는 활동보고서를 전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녹색연합은 서울에 위치한 본부 녹색연합을 비롯하여 9개의 지역 녹색연합, 4개의 전문기구가 함께 활동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여 전국 지역 녹색연합과 전문기구의 활동을 살펴보고, 후원을 시작해 보세요.

발간번호 01-2024-01-2

펴낸이 우경선

펴낸날 2024년 2월

디자인 일상의실천

펴낸곳 녹색연합

기획 및 편집 홍보팀 배선영

전화 02-747-8500

팩스 02-766-4180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19길 15(02879)

www.greenkorea.org

재생종이를 사용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녹색연합**  
Green Korea  
United

녹색연합을 소개합니다